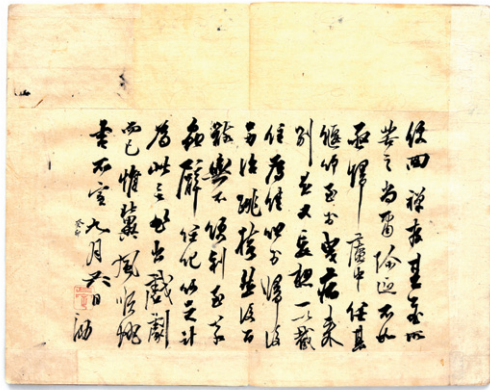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순풍에 뱃길 여의하시길”



초의가 제주를 떠날 무렵 추사로부터 받은 편지인 <추상운타첩>

당시 초의의 고달픈 정황은 “고달픔에 지쳐서 야 떠나게 되는군요”라고 한 추사의 증언을 통해 짐작된다. 당시 초의는 상흔이 다 아물기도 전에 제주를 떠나야했던가 보다.

관란한 상황에서 제주를 떠나야하는 벗을 위해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오랫동안 이어져 빨리 암자로 돌아가 한가롭고 편히 지내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한 추사의 위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간파한 그다운 처방이다.

한편으로 오래도록 자신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 그의 마음은 “이 또한 망상이겠습니까만 한 일 년 쪽 머무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라고 한 것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풍자와 희인을 구사했던 추사의 언행 속에는 해학을 넘어 잔잔한 애상(哀傷)이 밀려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희극일 뿐입니다”라고 한 추사의 말 속엔 유배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그의 말처럼 “돌아간 후에 따로 절록거리리는 원숭이 같은 몸을 치료하시고, 그런 후에야 온 몸이 편하고 마음대로 움직여져서 쓸모있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한 충언엔 벗을 아끼는 마음이 잔잔하게 전해져 읽는 이의 콧등을 아리게 한다. 충비(蟲臂)는 자질해서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초의의 상흔은 그런 것이다.

1843년 9월 경, 물으로 돌아가는 초의에게 순조로운 바람, 뱃길도 여의하길 빌었던 추사였다. 지기(知己)이란 바로 이런 성의를 서로 전하고 느껴지는 관계이다.



박중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초의가 벗을 찾아 제주로 향했던 시기는 대략 1843년 늦은 봄으로 짐작된다. 이런 사실은 이 해 여름, 그가 제주 목사 이원조와 어울려 지은 <제목이공색시차망경루은(濟牧李公索詩次望京樓韻)>에서 확인된다. 그가 차운(次韻)했던 망경루는 제주목의 관아 객사였던 영주관의 부속 건물이다.

현재 제주 북초등학교 동쪽 삼도2동에 위치했던 이 관아는 세종 16(1434)년 화재로 유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후 거듭 증, 개축되었는데, 관덕정, 흥화각, 연희각, 우연당, 영주협당, 외대문, 굴림당, 동대문, 망경루, 회랑 등이 어우러진 제법 큰 규모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 유실되어 관덕정 건물만 남았던 것을 1999년~2010년 제주 관아 일부가 복원되면서 망경루의 옛 모습을 되찾게 된 셈이다. 바다 건너 임금의 계신 곳, 궁궐을 바라보며 군신의 지중한 예를 갖추었던 장소, 망경루는 바로 제주에 부임했던 관리들이 임금을 향한 충정을 드러낸 누각이다. 초의 또한 이 망경루에서 제주목 이원조와 한바탕 글재주를 다투던 곳. 이런 아회(雅會)도 잠시 초의는 제주에서 상흔(傷痕)을 입는다. 말을 타다 입은 상흔은 객승 초의를 고달프게 했던가 보다. 그가 제주를 떠날 무렵 추사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담았던 편지가 <추상운타첩>에 수록되었다가 세상에 드러났다. <완당문집> ‘여초의’ 에도 누락된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돌아 온 인편에 그대의 편지가 있어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오랫동안 이어져 빨리 암자로 돌아가 한가롭고 편히 지내는 것만 못합니다. 고달픔에 지쳐서야 떠나게 되

벗을 아끼는 마음 잔잔하게 전해져
초의 스님, 1843년 봄 제주 방문
제주목과 망경루서 글재주 겨뤘

는군요. 이 또한 망상이겠습니까만 한 일 년 쪽 머무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다만 돌아간 후에 따로 절록거리리는 원숭이 같은 몸을 치료하시고, 그런 후에야 온 몸이 편하고 마음대로 움직여져서 쓸모있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희극일 뿐입니다. 오직 순풍에 뱃길이 여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1843년 9월 6일 목 (便回禪存甚慰 所苦之尚爾彌延 不如亟歸庵中任其偃仰 至於曳病來別 是又妄想 一以截住爲佳 但於歸後 另治跳猿 然後百骸無不便利 至若蟲臂任化 何足計爲此言書出 戲劇而已 惟冀風順帆吉 不宣 癸卯九月六日 溯)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추후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예정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왕청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翁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왕청에서는 동참하시는 스님들께 경제적인 부담이나 경비를 단 한번도 요청한 적도 없으며 회비조차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간에 금액을 요구했다느니 하는 모략과 시기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철없는 자들의 언행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禪的 직관과 통찰로 순수 서정시 지평 심화

최동호 고려대 교수(시인·평론가)

6월 20일 최동호(65)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제자들이 (차인(痴人)의 숲과 바람의 씨눈)이라는 제목의 기념문집을 발간했다.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스승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최동호 교수가 걸어온 길목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들이다. 그 이정표에는 연구자로서, 시인으로, 비평가로서의 이름이 돌출해져 있다.

시력(詩歷) 40년을 앞둔 최동호 시인은 시인과 평론가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면서 세 학교에서 수많은 시인, 평론가, 연구자를 길러냈다. 정일근(경남대 교수) 시인, 맹문재(안양대 교수) 시인, 오형염(수원대 교수) 문학평론가 등. 그동안 최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문단에 발을 내디딘 문인만 70여 명에 이르며, 학부와 대학원에서 그에게 현대시를 배우고 국문학자의 길로 들어선 제자만 포함하면 120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60여 명의 시인, 20여 명의 평론가, 40여 명의 문학연구자가 기념문집에 참여해 자신들의 대표시와 최 교수의 시에 대한 감상과 인연을 담은 에세이집 <차인의 숲과 바람의 씨눈>을 보정했다.

이처럼 한국 현대시문학이라는 숲에 수많은 씨앗을 심은 최동호 교수는 사실 불교와 인연이 깊다.

그는 고도의 정신주의 시세계를 열었던 시인이자 승려였던 김달진(1907~1989) 시인의 사위로, 박덕규 시인과 함께 김달진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김달진 전집(문학동네)을 냈다.

제1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현대 불교문학상 수상자 선정에 10회까지 도맡아 했으며, 만해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 교수는 최근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1회 유심작품상 시 부문에 선정돼 오는 8월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에서 상을 받게 된다. (본지 943호 4면 보도)

6월 18일, 서울 성북구청 근방 최동호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시사문화인협회 사무실에서 최 교수를 만났다. 그의 자리에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시 창작과 평론에 35년을 바친 노학자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만해 스님 ‘님의 침묵’ ... 가을의 전율

1948년 수원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부산, 목포 등 지방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내다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 남창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며 도서부장과 문예 반원으로 활동했다’고 기록돼 있다. 최 교수는 당시를 떠올리며 “멀리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외갓집에서 홀로 공부하는 소년의 외로움이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중학생이 된 1960년, 팔달산 언덕과 수원 천변서 놀던 기억은 최 교수의 문학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됐다. “초여름 어느 날 화령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보았던 붉은 작약꽃밭은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놀람과 경이의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다. 화령전 한편에서 들리던 국악 소리도 영혼 깊숙한 곳에 맴도는 음악적 체험이었으며 화령전 입구에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의 표상이 됐죠.”

일학년을 마친 그는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던 목포로 전학했고, 얼마 후 아버지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했다. 중3 시절은 최 교수에게 우울하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후 시골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옮긴 최 교수는 역사나 철학서를 탐독하며 전공으로 공부하겠노라고 다짐했다. 최 교수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산문(山門)에 들어가 스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용기가 없어 결단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많아 책을 많이 읽던 시기였다.

그러다 고2 가을 국어시간, 동급생이 만해 한용운의 시를 암송하는 것을 듣고 크게 마음이 흔들렸다.

“동급생이 ‘님의 침묵’을 낭송했습니다. 약간 더듬거렸지만 그가 낭송을 끝내고 나자 침묵하던 교실 안

에 이상한 전율이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이 알 수 없는 가을의 전율을 계기로 문학을 지망하게 됐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시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법이나 경어를 지원하길 희망했던 부모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조지훈 시인이 있는 고려대로 진학했다. 시의 매력을 느끼기도 잠시, 대학 3학년 시절인 1968년 5월 조지훈 시인이 타계하면서 최 교수는 한동안 문학적 방황을 했다. 무너진 꿈을 찾기 위해 그는 혼자서 몇 백 권의 시집을 독파하는가 하면, 동시교내 독서 서클 회장이 돼 매주 학생들과 함께 한 권의 고전을 읽었다. 졸업을 앞두고 도서관에 진을 치고 있던 학과파들이 회계사가 되거나 고시를 하고, 일류회사에 입사하면서 하나둘씩 제 길을 찾아갔다. 반면 최 교수는 습자시를 쓰고 있었으나 뚜렷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날들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최 교수에게 위로가 된 글이 있었다. 바로 김달진 시인이 역술한 <범구경>의 구절이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받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이 멀 듯이/ 불법(佛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生死)의 법칙은 길고 멀어라’

최 교수는 군복무를 하면서도 습자시를 써내려갔다. 제대 후 20대 중반 무렵, 고등학교 교사가 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일생을 걸고 문학을 계속 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월정사 마당에 가슴 속에 새겼던 <범구경>의 구절이 돌에 새겨져 비를 맞고 있는 것

청년시절 <범구경> 구절로 방향 달래

김달진 시인 딸 김구슬 교수와 결혼

“경전번역 몰두 장인 모습 외경 스러”

1990년 ‘김달진문학상’ 제정, 사상 기려

그가 만든 ‘극서정시’ 격식벗은 선시 비속

보조국사 <참 마음 닦는 법> 출간 준비

을 목격했다. <숫타니파타> <아함경> <유마경>을 탐독하는 계기가 됐다.

스님 김달진 시인과의 만남

1976년 시간강사를 할 무렵, 최 교수는 대학시절부터 갖고 있던 시작노트를 정리해 <황사바람>(열화당)을 발간했다. 이 때 지인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났다. 김달진 시인의 딸 김구슬 교수(협성대)였다.

“아내(김구슬 교수)를 몇 차례 만나면서 부친이 김달진 선생님을 알게 됐고, 그 분이 생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연이라 생각했죠. 책에서 본 인연이 10년이 지나면서 현실로 이어지게 된거죠.”

시인이자 한학자이며 승려였던 월하 김달진 시인은 1960년대 이후 은둔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일관된 시세계를 견지했으며, 시집 <청시(靑詩)>(1940)를 비롯해 시전집 <울배미의 노래>(1983), 선시집 <禪詩集> <한 벌 옷에 바리때 하나>(1990) 등을 통해 세속적 영욕이나 번뇌를 초탈한 절대세계의 지향을 표현하고자 했다.

김달진 선생님은 수도자적인 분이셨고 자신의 공적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시인이라는 세속적인 이름을 버리고 불교 경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내밀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던 최 교수에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일 서너 시간씩 경전번역에 몰두하던 김달진 시인은 외경스런 존재였다.

“선생님은 세속법사는 잘 모르는 분이셨지만 유명한 스님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보다는 제게 가르침



최동호 교수와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장호 동국대 교수, 송재학 시인 등 문인들이 1995년 김달진 시인의 ‘열무꽃’ 시비(詩碑)를 김달진 시인의 고향 경남 진해 시민회관에 세우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최동호 교수는 ... 1948년 수원에서 출생해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첫 시집 <황사 바람>을 펴냈다. 1979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경희대 조교수, 경희대 부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있다. 시론집 <불확정 시대의 문학>(1988), <디지털 문화와 생태 시학>(2000), <진흙 천국의 시적 주술>(2006) 등이 있으며 시집으로 <딱따구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1995), <공놀이하는 달마>(2002), <얼음 얼굴>(2011) 등이 있다. 문학상으로는 <현대불교문학상>(1996), <대산문학상>(2006), <고산문학대상>(2009), <박두진문학상>(2009) <유심문학상>(2013)등을 수상했다. 이 밖에 최동호 교수는 시 전문지 <서정시학>을 1990년 창간했고, 국내 문인 가운데 처음으로 2011년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할 정도로 지명도 높은 시인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을 많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하고 인연이 꽤 불교에 관계된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평생 해 오신 일이 역경(譯經)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심부름을 했고, 지금도 김달진 선생에 관한 불교 책은 제가 다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김달진 시인이 작고하면서 최 교수는 그의 삶을 물어두어선 안 되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이듬해 김달진문학상 제정위원회를 조직해 매년 '김달진문학상'을 시상하고 있다. 인간이 구현해야 할 정신주의 영역을 일관되게 추구했던 율하 김달진 선생의 시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다. 또 최 교수는 1996년부터 매년 가을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김달진 문학관에서 김달진 문학제도 개최하고 있다.

바보(痴人)가 설악산 숲길을 헤매다

2000년 가을, 수년간 오현 스님과 교류해오던 최동호 교수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오래전 말씀드린 당호를 받기 위해서다. 오현 스님이 내려준 당호는 '치인(痴人)'. 어리석을 '치(痴)'에 사람 '인(人)'이다. '바보'가 되다니,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던 전설적인 명호 들이 최 교수의 머리를 스쳐갔다.

“큰 기대를 가지고 설악산에 들어갔는데 죽비 한 방을 얻어맞은 기분이었습시다.”

오현 스님은 당황한 최 교수의 마음을 간파하고 말했다. “(백암록)에 나오는 죽비 있는 당호요. 앞으로 열심히 시를 쓰라는 뜻이지.”

방문을 열고 나와 소변을 보고 나니 설악산 계곡에 쏟아지던 달빛과 물소리가 최 교수의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만해 한용운이 '님의 침묵'에서 말한 바보 그 숲길을 어둠 속에서 걸었다. 그리고선 백암록 제7칙의 본문을 음미했다.

해초가 법안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안이 답했다. “네가 해초냐.” 해초는 이 말 한마디에 바보가 됐다. 그리고는 크게 깨달았다. 되다 만 바보는 바보가 아니다.

“시의 길을 가는 하나의 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시다. 때로 흔들림이 있었지만 서로 창작이 바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비분리의 길을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최동호 교수는 10년 전 불교신문에 <선문염송>을 1년간 연재 하면서 처음 <선문염송>을 읽었을 때 옛날

에 꼭 어디선가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선문염송>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읽고 종합하면서 평설을 덧붙여 연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교경전을 알음알이로 아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불자라고 내세우며 다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또 제가 해온 일도 그렇고 마음속에는 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동호 교수의 시 철학은 그가 만든 '극(極) 서정시'라는 용어에 잘 녹아 있다. 극서정시란 인간의 희로애락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시 중에서도 짧고 간결한 시를 뜻한다. 장황하게 나열하지 않고 단 몇 줄만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게 목표다. 모든 형식이나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시(禪詩)와 비슷하다.

“거품 향기, 찬 연도날/ 출근길 얼굴/ 저미고 가는 바람/ 실핏줄 열어, 푸른 릉/ 이파리 다 떨군/ 나뭇가지/낙하지 정, 찾지 못해/ 투명한/ 허공같이 박혀/ 눈 거품 날개/ 쓴/ 흥시 얼굴 하나 (최동호 '얼음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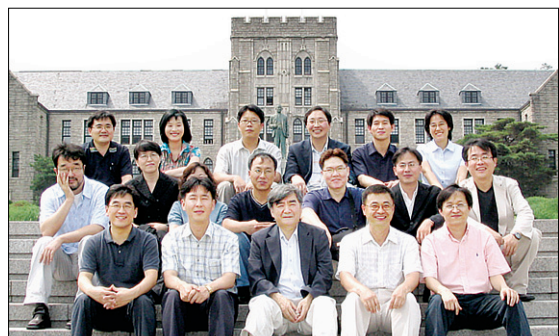
최동호 교수의 시와 비평은 불교적 직관과 통찰을 바탕으로 유가적 동양시학의 전통을 정립하는데 바쳐졌다. 그의 비평은 20세기 후반 서구의 시학을 넘어서서 한국의 주체적 시학을 확립하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그의 시는 불신주의를 넘어서는 선적 직관과 통찰로 순수 서정시 지평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런 최 교수는 서정시 본연의 미학과 이론을 창출하기 위해 시 전문지 <서정시학>을 1990년 창간했고, 선시문학과 서정시의 영역을 확대·심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년을 앞둔 최 교수의 마음은 수원 남문에 가 있다. 요즘 그는 고향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 창작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3회 이상 결석하면 수료증을 안 주고 탈락시킬 정도로 학사관리가 엄격하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수강생들이 최동호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고향에 가면 다시 초등학교가 되는 기분입니다. 분주함도 번다함도 없어요. 시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시의 기초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현재 제 소망입니다.”

아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최동호 교수는 최정례, 정일근, 문태준 시인 등 70여 문인을 발굴했다. 사진은 2005년 고려대 교정에서 제자들과.



1992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 국제창작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 낭송을 하는 최동호 교수. 그는 세계 시인들과 교류하며 동양과 서양의 시를 전파했다.

전법일기

도시락엔 반찬만 담긴 것이 아니다

독거 어르신 반찬 봉사

수지와 통계를 나열하는 것은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지루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우리절이 위치한 지역은 저소득층 노인이 많다. 6월 20일 현재 우리 동네인 대구 달서구 송현1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688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9명으로 8.1%를 차지한다. 2011년 현재 전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평균 2.9%인 걸 감안하면 우리 동네에 저소득층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동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독거노인의 수는 17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6.7%를 차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전체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을 따져보면 무려 81.7%나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10명 가운데 여덟 명이 혼자 사는 것이니 그 비율이 놀라울 정도다.

나는 아직 젊은 편이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입장을 헤아리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노인이 되면 만사가 귀찮을 것 같고 몸을 움직여 음식을 해먹는 것이 서글플 것 같다.

특히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있는 것처럼 무료한 나날을 보내면서 즐거움 이라곤 억지로 찾아야 TV 밖에 없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먹고 사는 것조차 번거롭고 싫을 것 같다. 맨날 먹는 반찬이라 해봐야 김치 몇 쪽이 전부일 것이고, 그나마 귀찮으면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일 것이다. 그게 하루 이틀, 한두 달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노인들은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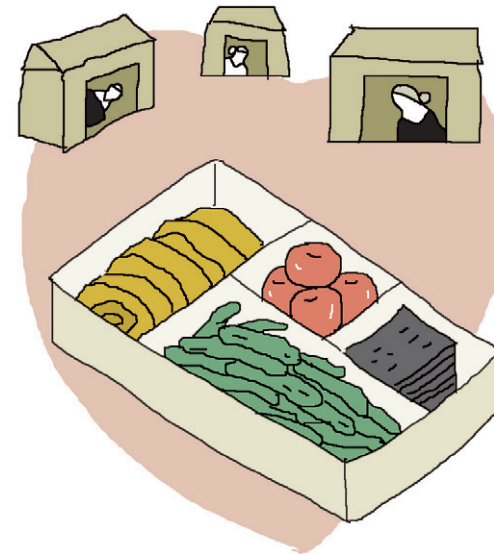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기초수급 노인 80% 독거 노인들 삶 위로하는 게 사찰 목표

이다. 그런 노인들은 돌봐야 하는 것은 당연히 갖가지 형태로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의 역할이지만,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것까지 해줄 것 같진 않다.

국가가 하지 못하면 그 일을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할 텐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이웃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형편 때문에 우리절에서 반찬 도시락 배

달을 시작했다. 약 5년 전에 4, 5곳으로 시작한 일이 점차 늘어나 이제 22곳을 헤아리게 되었다. 독거노인을 위해 거창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운을 떠더니 고작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힐난하는 분도 계시지만 말이 쉬워 그렇지 스물 두분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1주일 반찬 서너 가지와 떡, 때때로 국과 과일을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 여간 문제가 아니다.

반찬 도시락 배달을 위해 나선 분들은 송현1동에 사는 송현 법등 불자들이다. 전체 25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우리절 신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다. 이들은 4개조로 나누어 주 1회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열성회원도 몇 명 있다.

후원회원은 전체 35명으로 형편에 따라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고깃집을 하는 신도 두 분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제공한다. 이들이 후원하는 액수는 월 1백만 원 가량으로 부족액은 특별 후원을 받거나 절에서 부담하기도 한다.

우리절의 목표는 일단 결핍되기 쉬운 노인들의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큰 목표는 좋은 반찬을 갖다주는 그 마음으로 더 많은 홀몸 어르신들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르신들의 배우자

노릇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자식 노릇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정성으로 굶은 날 신경통처럼 쭈셔오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 로고인등	팔각기둥주전등	주름 등	왕정기등전등
칼라로카시인등			용가 등
공단 등			그림 왕정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계는 법당 연등 설치도 바쁜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